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튼의 **부의 불균등성과 경제성장***

이 학 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강연 내용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작년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년 초 처음 봤을 때는 경제사를 다룬 책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기에 요약본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고 나서 “이건 뭔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유사한 비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150년 전에 했던 주장을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이 최근에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의 앵거스 디튼(Angus S. Deaton) 교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이 분의 저서를 전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몇 주 뒤에,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Weakly Biz) 특집 세션으로 기자가 직접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디튼 교수와 대담을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과 디튼 교수의 「위대한 탈출」의 내용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가 2015년 11월 27일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한 「제3회 경제학 원로석학과의 대화 - 이 학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내용을 녹취, 정리한 것임.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 6분과 회원.

피케티 교수는 런던 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와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에서 경제사로 박사학위(European Doctoral Programme in Economics)를 받은 이후에 MIT대학교에서 3년 간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파리 경제대학교(Paris School of Economics)의 교수로 있는데, 대학교 설립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wealth)의 불균등성은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높으면 불균등성이 심해지고, 반대로 성장률이 높으면 불균등성이 완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불균등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후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부가 형성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50년까지 불균등성이 완화되었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균등성이 다시 심해졌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국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하버드대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21세기 자본」의 스타일, 논조, 그리고 결론이 마르크스의 이론과 유사한데, 사실 마르크스의 이론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결점이 많아 이론적인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다시금 그 이론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러나 그런 우울한 비판은 현실과는 상반되는 예측이었음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 제목, 연구스타일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에 대한 재론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해서 성공한 경제체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왜 체제를 전환했을까요? 더 이상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한 경제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피케티 교수가 다시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평가했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2) 최근의 기술개발과 부(富)의 축적

기술개발에 의한 부(富)의 축적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학술원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50년 동안 일어난 부호들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Bill Gates), 스티브 잡스(Steve Jobs), 잭 마윈(Jack Ma), 그리고 해롤드 햄(Harold Hamm)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폴 앨런(Paul Allen)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부자가 되었고, 현재 그의 재산은 79.3십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0조원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느냐, 바로 지구상에 있는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윈도우즈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컴퓨터를 쓴 시기가 1967년인데, 당시 계량경제학 연구과제를 위해 처음 컴퓨터 센터에 가서 먼저 ID 카드를 편칭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견지를 편칭하고, 또 데이터를 30장 가량 편칭했습니다. 이 카드들을 고무줄로 묶어서 컴퓨터 센터에 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때 컴퓨터 센터는 큰 방에 냉장고 열 개는 될 듯해 보이는 거대한 IBM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카드 묶음을 맡기고 3-4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결과를 받아보니 아웃풋에 그냥 “Error”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 0하고 영어의 알파벳 O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다섯 번을 더 시도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겨우 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센터가 대학교, 정부기관 및 주정부 같은 곳들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개인 책상 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센터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편리함을 빌 게이츠가 인류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즉,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대가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것을 나무야라 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분은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인데, 중국은 땅이 넓어 물건을 사고파는데 점포가 전부 들어설 수 없는 점에 착안해 전자상거래 사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마윈은 집이 매우 어려워, 부모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면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활했고 대학 입시에도 3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항저우 사범대학 졸업 후에 북경으로 가서 야간대학을 다니다가 홍콩의 대부호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중국은 땅이 넓으니 전자상거래를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성공한 후에 월스트리트에 상장해 중국에서 제일가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해롤드 햄(Harold Hamm)인데, 18세부터 주유소와 트럭 운전사로 일했고 대학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24세부터 셰일(shale) - 침전물이 바다 밑에 퇴적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암반 - 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암반을 개발하는데 몇 십 년이 걸렸습니다. 올해가 70세인데 24세부터 50여 년 동안을 셰일오일과 가스를 추출하는데 매달린 셈입니다. 1970년대에도 록키산맥 밑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에서 환경문제를 이유로 개발을 허가 해주지 않았었는데, 미국의 방침은 자국의 자원을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해저 3,000미터의 셰일오일과 가스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오일과 가스는 수압파쇄(fracking) - 모래 및 화학물질을 섞은 물을 분사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공법 - 라는 방법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해냈습니다. 과거 1972년에 OPEC이 석유가격을 올리면서 유가가 배럴당 2달러에서 갑자기 10달러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 때나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부 수입했었는데,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타격이 심각했고 나중에는 건설사들이 중동까지 가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후에도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 1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셰일오일과 가스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석유 가격이 15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형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려면 2년 전에는 14~15만원이었는데 요즘은 8만원 수준입니다. 기름 값이 14만원에서 8만원으로 떨어져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저뿐일까요. 모든 인류가 셰일오

일과 가스 추출기술 덕분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대가로 해롤드 헨은 11.7십억달러(약 13.7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얻은 이득과 비교하면 몇 십만 분의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부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었다고 또는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이런 발명을 못하게 해야 할까요?

3)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튼

마지막으로 금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튼 교수의 여러 권의 저서 중에, 2013년 출간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짐작에는 첫째는 병마에서, 둘째는 가난에서 탈출했고, 그래서 결국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프린스턴에 가서 디튼 교수와 대화를 나눈 기사를 읽고 요약해봤습니다. 디튼 교수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부의 축적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장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류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균등성은 좋고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창조하는 것, 즉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서는 불균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재산을 덜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면은 동기 부여와 경제성장의 촉진, 나쁜 면은 소수의 부호에 의한 금권정치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피케티 교수와 의견이 일치하며, 그래서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따르면 피케티 교수는 상위 1% 부자들에게 80%의 소득세와 10%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디튼 교수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많으므로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견해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는데 8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납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디튼 교수의 마지막 결론은 “창조적 파괴가 불평등을 유발하며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격한 정책보다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디튼 교수와 같은 입장이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디튼 교수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질의응답

학생 : 교수님께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학용 명예교수님 : 여기서의 균형이란, 현재 우리의 사회후생제도 예를 들어 누진세율,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 그 부분에 대한 점은 다른 사람들도 고민을 해왔을 텐데, 디튼 교수의 의견이 특별히 주목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학용 명예교수님 :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피케티 교수의 과격한 제안, 즉 80% 소득세와 10% 부유세 등에 대한 반론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케티 교수의 의견대로 한다면, 창조적 발전의 동기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 논평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마르크스의 이론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한계생산성을 의미하는 이자율을 포함하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빨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바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가의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 자본가의 독점화가 진행되고 결국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이러한 불균등이 계속 된다면 노동소득은 사라지고 소수의 자본가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모순이 점차 중첩되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로 이행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체제론의 결론입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는 주장까지는 하지 않았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와 같이 지적은 했는데, 다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과격할 뿐입니다. 강연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위 1%의 부에 대한 80% 소득세 및 10% 부유세 부과를 주장한 바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는데, 피케티 교수도 그 부분이 본인 주장의 핵심은 아니며 불평등에 대한 사실(fact)을 발견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부유세와 같은 정책만이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케티 교수에 비해 디튼 교수의 발견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로 돌아갔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국가 쪽으로 더 많이 분배되긴 했습니다. 다만, 저성장 국가의 빈곤계층도 소득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튼 교수의 책을 보면, 건강지표 측면에서 빈곤국가의 영양상태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멈췄을 때의 부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국가는 물론 가난한 국가도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고 단지 그 혜택만 다르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사실도 성장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앞의 학생이 균형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바로 그 균형을 달성하는 정책 방안에 있어서 피케티 교수는 과격한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사회복지시스템 또는 보편적 복지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

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일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나타난 국가입니다. 즉, 소득재분배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전후를 비교하면 OECD 국가 중에 소득재분배 완화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극화,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에 어떤 방안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가, 다시 말하면 그러한 방안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찾는 것이 디튼 교수가 주장하는 균형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디튼 교수의 두 번째, 네 번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피케티와 디튼 교수가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즉, 양극화와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학용 명예교수님 : 아까 전철을 타고 왔는데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고 나면 그러한 생활이 구속 받는 것보다 더 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도 지하철 같은 곳에서 노숙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